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옳지 않다는 것 짚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실제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모호하지 않고,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선과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적인 관심만 갖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죄의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에서만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실용주의자들이라서 유용성을 기대하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 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1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인생은 '복' 된 인생인 것입니다.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된 서문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 설명절 가정예배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다함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닥아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찬송가 550장

공동기도 (다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동안,
저희 온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다함께)

사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인도자)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

가장이나 가족 중 대표자가 순서지의 설교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낭독 후 가장이나 가족 중 대표자가 짧은 기도를 합니다.

찬송 (다함께)

599장 사철에 봄바람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살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새찬송가 599장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